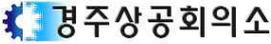


본 자료는 2018년 9월 14일 夕刊부터	보도자료  경주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연락처	☎ 054)741-6601
본 보도자료는 경주상공회의소 인터넷(http://gyeongju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주지역 제조업체 추석 휴무 현황 조사

추석 휴무는 전체 응답 업체 중 83%가 주말을 포함한

9/22(토) ~ 9/26(수)까지 5일간 휴무 실시 예정

상여금 지급은 전체 응답 업체의 72%가 지급할 계획

상여금은 작년 평균 상여금 85만원보다 줄어든 78만원선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는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54개사(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휴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 올해 추석 휴무기간은 법정공휴일인 주말을 포함하여 5일 동안 실시하는 업체가 83%로 가장 많았으며, 추석 휴무 평균 일수는 작년(8.2일)보다 3.7일 줄어든 4.5일, 상여금은 작년(85만원)보다 7만원 삭감된 7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연휴기간 동안 업체 사정상 조업으로 인한 부분적인 휴무를 실시하는 응답 업체도 있으나 조사업체 중 89%가 전 직원이 같은 기간에 추석휴무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사)

휴 무 일 수	6일	5일	4일	3일	계
응답 업체 수	3	45	4	2	54
비 율	6%	83%	7%	4%	100%

※ 추석 휴무 평균일수 : 4.5일 (토, 일요일 포함)

-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급했고, 올해도 지급할 계획이다」 라고 응답한 업체가 39개사(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년에는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응답한 업체가 12개사(22%),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지급할 계획이다」 라고 응답한 업체가 3개사(6%)이며,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로 별도 상여금이 없다」 라고 응답한 업체가 12개사(80%), 「기업 실적악화로 지급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업체가 2개사(13%), 기타 1개사(7%)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업체 중 「일정액 지급」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5개사(64%), 「기본급의 50%」 라고 응답한 업체가 11개사(28%), 「기본급의 100%」 라고 응답한 업체가 3개사(8%)로 나타났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제조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생산량과 매출액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추석 휴무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